

“자는자여 어찌함이나”

요나 1:1-10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요나 1:5)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이방백성인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자여 어찌함이나,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요나 1:6)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나?’, ‘지금이 잠을 잘때냐?’

하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깊은 잠에 빠지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성도들을 깨우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통해 말씀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비난할 때, 때로는 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인지를 알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니라” (요나 1:7)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1.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 1:8)

자신들이 풍랑을 만난 근본적인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부로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며, 문제를 확인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작은 실수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비난합니다. 심지어 사랑으로 품어야 할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인 배의 선원들이 신중하고 침착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훈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는,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로 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 정직한 태도

제비를 뽑아든 요나에게 선원들이 그가 이 풍랑을 만나게 한 원인제공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럴 때, 요나가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며, 정직하지 않게 대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 1:10)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 1:12 후반)

비록 요나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떠나는 길이었지만,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맞게 되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환경을 맞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분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배 밑창에서 쿨쿨 잠들어 있을 때, 선장은 그를 흔들어 깨우며 한 말입니다.
이것은 선장이 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나와 같이 배 밑창에서 영적으로 쿨쿨 잠들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비 바람이 몰아치는 풍랑을 만났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는,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깊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 옛날 선장을 통해 요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쩌면 바로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풍랑을 만난 배에서 요나가 제비를 뽐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이야기해 보고, 두가지 교훈 중에 내가 배워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에 반응하기 원하신다면,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